

“천진해변 찾아 넉넉한 시골인심 느끼세요”

주민 20명 채용 완벽한 해변관리, 어린이풀장도 갖춰 … 개장기간 오징어맨손잡기 축제 2회 개최

‘천진해변’ 운영위원장 이동환 이장(천진2리)

“맑고 푸른 동해와 긴 백사장, 울여름 피서는 넉넉한 시골인심을 느낄 수 있는 천진해변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세요.”

지난 15일 고성지역 26개 해변이 일제히 개장한 가운데, 고성군 관문인 토성면에 위치한 천진해변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피서객을 맞고 있다.

이동환 천진해변 운영위원장(천진2리 이장, 사진)은 “천진해변은 500여m에 이르는 긴 백사장과 낮은 수심으로 가족들이 함께 보내기 좋다”며 “특히 해변에 조개가 많아 피서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고 자랑했다.

천진1리와 2리 2개 마을이 공동 관리하고 있는 천진해변은 각 마을에

서 5명씩 모두 10명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해변관리를 하고 있다.

마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바가지 요금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시설면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샤워장과 식수대 및 야영장은 기본이고, 40~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 풀장까지 갖췄다. 화장실도 최신식이다.

이와함께 3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고, 마을 어르신 6명을 채용해 수시로 해변 청소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깨끗한 해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해변 운영기간 동안 마을 주민 20여명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효과도 가져오고 있다”며 “해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돕기와 노인잔치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천진해변은 특히 이달 29일과 8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오징어맨손잡기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야영장에서 해변영화제를 운영하고, 수시로 해변 노래자랑 등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동환 운영위원장은 “천진해변은 고성군 관내 다른 해변에 비해 인근에 펜션과 민박 등 숙박시설이 풍부하고, 슈퍼 등 편의시설도 많다”며 “한마디로 지갑만 들고오면 모든 것을 현지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 제15기 민주평통 고성군협의회 윤금열 회장 취임

“통일의 필요성 일깨우는 데 앞장”

제1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 출범식 및 제1차 정기회의가 지난 12일 오전 11시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통일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희망”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윤금열 제15기 고성군협의회장이 취임했다.

이날 행사는 홍보동영상 상영에 이어 공로장 수여,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 윤리강령 강독, 민주평통기인게, 취임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취임한 윤금열 회장은 “우리 고성군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제일 쓰라린 아픔과 이산의 한을 안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며 “시대적 흐름 속에 반공의식과 통일의 염원이 점점 희석 되어가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윤 회장은 또 “우리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투철한 반공정신과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워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1차 정기회의에서는 15기 자문위원 소개를 시작으로 민주평화통일 현황설명



지난 12일 열린 민주평통 제15기 출범식에서 윤금열 신임 회장(왼쪽)이 김일용 전임 회장으로부터 민주평통기를 전달받고 있다.

및 협의회 임원 인준, 15기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15기 고성군협의회 임원 명단이다. △ 윤금열 협의회장 △ 함석원 수석부회장 △ 손미자 부회장 △ 김승식 간사 △ 안봉식 교류협력 분과위원장 △ 안한수 교육홍보 분과위원장 △ 박현덕 사회복지 분과위원장 △ 김희선 여성 분과위원장 △ 김호권 청년 분과위원장 △ 김철수 문화예술 분과위원장.

박승근 기자

□ 고성중 3년 윤철규 트라이애슬론 청소년국가대표 선발

올림픽 출전 후 성인 국가대표 꿈

고성중학교 3학년 윤철규 학생이 철인3종 경기라 불리는 트라이애슬론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지난 14일 거진에 위치한 체육관에서 만난 윤철규 선수는 “올림픽에 나가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꿈”이라며 “일단 청소년 국가대표를 거쳐 성인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윤 선수는 박민근 전 고성중 체육교사의 권유로 중 1학년 때 처음 트라이애슬론을 접했다.

“처음 권유를 받았을 때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반대를 하셨어요. 아빠가 운동선수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운동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윤 선수의 부모는 현재 간성 시내에 위치한 비호태권체육관과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윤 선수는 부모의 반대 속에서도 끈질긴 설득으로 어렵사리 승락을 얻어냈다.

윤 선수는 그래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부모에게 지금껏 못다한 보답을 해 드리고 싶다”고 했다.

윤 선수를 지도하고 있는 천강훈 코치(30세, 전 국가대표)는 “윤 선수는 이 운동에 적합하고 탁월한 신체적 구조를 갖춘 선수”라며 “지금보다 더 대성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보수로 후배 양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후배들과 운동을 함께 하기 위해 고향에 정착한 천 코치는 “이곳 고성엔 지금까지 10여명의 국가대표를 배출된 뜻 깊은 곳”이라며 “운동에 전념 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